

2021년 9월 10일

지니뮤직, 구독형 전자책 1위 '밀리의 서재' 인수

KT의 미디어 그룹사인 지니뮤직은 10일 이사회에서 464억원을 투자해 국내 1위 전자책 사업자인 '밀리의 서재'(대표 서영택) 지분 38.6%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니뮤직은 '밀리의 서재' 1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니뮤직은 이번 인수를 통해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오디오 콘텐츠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국내 최고 AI 오디오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오디오 플랫폼'이란 음원 서비스와 오디오북, 오디오 예능 등 오디오 콘텐츠를 AI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 '19년 25조 5,530억 원이던 음원 제외 오디오 콘텐츠 시장은 '30년 87조 4600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그랜드뷰리서치는 글로벌 오디오북 시장의 규모가 '19년 3조 1천억 원이며, '27년까지 연평균 24.4%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7년 10월 월정액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선보인 '밀리의 서재'는 10만 권 이상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전자책 업계 1위 사업자입니다. 국내 전자책 및 오디오북 이용자 급증과 함께 '20년 매출은 192억원으로 전년대비 75% 성장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성장성과 향후 지니뮤직의 인수 후 KT그룹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22년 IPO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니뮤직은 연내 '밀리의 서재'가 보유한 오디오북 콘텐츠를 AI 음악 플랫폼 '지니'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최근 음원 스트리밍 환경이 모바일에서 웨어러블 기기, 커넥티드카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니뮤직이 기가지니, 갤럭시 워치, 애플 워치, GV80 등에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니뮤직과 '밀리의 서재' 고객은 다양한 환경에서 오디오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에는 오디오북, 오디오 예능, 오디오 드라마 등 여러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 및 추가해 명실공히 국내 1위 'AI 오디오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니뮤직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밀리의 서재' 서비스를 결합한 번들형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양사 고객 모두 저렴하게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니뮤직 외에도 KT의 유/무선 고객에게 다양한 결합 방식으로 '밀리의 서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각 회사들의 가입자 기반 증가, 가입자 Lock-in 등 시너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의 다른 그룹사들과 '밀리의 서재' 또한 다양한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현재 KT는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 미래 성장성과 그룹 시너지를 고려한 구조개편 및 투자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에 설립한 KT스튜디오지니를 주축으로 미디어 그룹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 콘텐츠 제작을 위한 IP 확보 기반을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KT스튜디오지니는 국내 최고 '스토리 IP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를 통해 콘텐츠 흥행 가능성이 높은 IP확보가 가능해집니다. KT스튜디오지니는 '밀리의 서재' 구독 정보를 활용하여 작품 선별을 정교화하고, 출판사의 원작자와 빠르게 계약하는 등 미디어/콘텐츠 밸류체인을 시작인 IP 확보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밀리의 서재를 통해 서비스되는 도서들도 KT그룹 콘텐츠 생태계 속에서 오디오북, 오디오 드라마, 영상 콘텐츠 등 2차 저작물로의 확장이 유리해지고, 2차 저작물을 접한 이용자가 책을 찾아보는 선순환 구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KT그룹 외에도 지니뮤직의 주주사인 LG유플러스, CJ ENM 과의 다양한 협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니뮤직과 밀리의 서재는 오디오북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밀리의 서재’는 현재 3,000여 권의 오디오북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보유한 전자책을 활용해 매월 1,000여 권 이상의 오디오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셀럽이 참여한 ‘책이 보이는 오디오북’, 성우 여러 명을 멀티캐스팅 하고 음향효과를 넣은 ‘완독본 오디오북’ 등 다채로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KT가 가진 AI 기술(*P-TTS : 개인화 음성합성 기술)을 활용하여 오디오북 제작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등록된 성우뿐만 아니라 가족, 유명 가수, 캐릭터 등 다양한 목소리로 오디오북 제작이 가능하며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등 ‘밀리의 서재’가 1위 오디오북 서비스 플랫폼으로 나아가는데 양사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KT그룹의 DIGICO 전환에서 미디어/콘텐츠 사업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밀리의 서재’ 인수에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밀리의 서재’ 성장 스토리는 투자자분들께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 ‘밀리의 서재’ 기업 현황

설립일	2016.7월
대표이사	서영택
자본금	30억원
자산총액	123억원 ('20년말 기준)
지분구조	[인수 전] 서영택 13.8%, VC 7개사 60.4% 등 [인수 후] 지니뮤직 38.5%, 서영택 11.5%, VC 7개사 39.5% 등
재무실적 ('20년)	영업수익 192억원, 영업이익 △49억원
사업영역	전자책 및 종이책 정기구독 서비스

■ ‘지니뮤직’ 기업 현황

설립일	1991.2월 설립 / 2008.2월 계열편입
대표이사	조훈
자본금	291억원 ('20년말 기준)
자산총액	2,505억원 ('20년말 기준)
지분구조	kt seezn 36.0%, CJ ENM 15.5%, LGU+ 12.8% 등 ('21.8월말 기준)
재무실적 ('20년)	영업수익 2,470억원, 영업이익 115억원
사업영역	온라인 음악 서비스 및 음악 유통 서비스

※ 본 자료에 서술된 재무, 영업실적 등은 실제 실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예측정보는 시장환경 변화, 회사의 전략수정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계약, 약정, 투자결정 등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